

C4IR Monthly Report

2025년 8월 14일

C4IR Korea Global Intelligence Hub (koreago.net)

2025년 7월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트렌드 리포트

“본 번역/요약문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공식 번역/요약이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그 내용이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WEF Key Insights



[서머 다보스] 2025년의 반환점, 글로벌 리더들이 주목하는 핵심 의제

인공지능의 포용적 확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이 서머 다보스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AI 윤리와 교육,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신흥시

장 투자, 에너지 안보와 형평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머 다보스] 하계 다보스에 모인 세계 정상들, 글로벌 현안 해법을 논의하다

서머 다보스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장관들은 협력과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은 개방형 혁신과 내수 확대를 강조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세네갈, 이집트 등은 디지털 주권, 인재 투자, 여성 포용,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서머 다보스] 글로벌 경쟁력의 미래 :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는 4가지 전략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지정학 리스크와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경쟁 전략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행, 에너지, 물류, 금융 각 분야의 리더들은 사이버 보안, 공급망 재설계, AI 기반 효율화, 디지털 전환과 같은 전략을 통해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머 다보스] AI와 비즈니스의 융합 : AI 에이전트, AI+, 데이터, 윤리까지 리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서머 다보스에서는 AI 에이전트의 활용, 데이터 이해, 성평등, AI 응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리더십 역량의 재정립과 함께 여성의 ICT 분야 참여 확대,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머 다보스] 아시아의 시대를 되살릴 '소프트파워'의 가능성

'아시아의 세기'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아시아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각국 주요 인사들은 혁신과 가치사슬 통합, 인구 구조, 창업 생태계, 문화적 영향력 등 아시아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향후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머 다보스] AI 시대의 성별 격차 :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통찰

'Women in AI' 세션에서는 여성들이 AI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생성형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패널들은 여성의 AI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

육 제도 개선, 육아 지원,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글로벌 웨이퍼스 연례 서밋] 젊은 리더들이 지금 모여야 하는 이유

글로벌 웨이퍼스 연례 서밋에서는 청년 리더들이 모여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협업형 리더십, 포용적 경제, 인간 중심의 혁신, 세대 간 기후 행동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웨이퍼스 연례 서밋] 이노베이션 프라이즈 2025 :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12가지 차세대 프로젝트

올해 '이노베이션 프라이즈'에는 지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를 확장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 청년 주도형 사회 혁신 모델들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차세대 리더들이 지역 기반의 해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 기술(Technology)



지능형 시대를 위한 차세대 거버넌스 플랫폼이 온다

세계경제포럼과 UAE가 공동 출범한 글로벌 규제 혁신 플랫폼(GRIP)은 기술 혁신의 속도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협력적인 규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기존 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범한 이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기술의 날 : 디지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3인의 조언

AI 시대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단계부터 디지털 역량과 AI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면 인간 중심 역량과 함께 기술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교육 문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허위정보가 기업에 끼치는 진짜 비용

허위정보는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과 평판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가 더 빠르고 정교하게 확산되는 만큼, 조기 탐지 시스템, 위기 대응 전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공공-민간 협력 등을 통해 허위정보의 경제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이버 리더들이 제안하는 피싱 및 사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적 방어 전략

전문가들은 인프라 차원에서 안전을 내재화하는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협력해 보안 책임을 재편하고 AI 활용 방어 체계, 글로벌 정보 공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설계 등을 통해 악용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3. 경제(Economy)



세계화는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가 달라질 뿐이다

취리히 보험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가이 밀러(Guy Miller)는 “세계화는 형태만 달라질 뿐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각국은 협정을 통해 무역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기술, 인구, 디지털 교역의 변화가 세계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이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방법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신흥 시장이 민간 주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공급망 취약성, 규제 병목,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민관 협력이 회복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아세안, 세계적 긴장을 지역적 기회로 바꿔야 하는 이유

아세안(ASEAN)이 ‘전략적 다중 정렬(multi-alignment)’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입지와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 외교 전략은 무역, 투자의 다변화뿐 아니라 디지털, 블루 이코노미의 성장을 이끌며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회복력으로, 업종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세계경제포럼의 ‘HRI 프레임워크’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개발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장기적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이 프레임워크는 원조 중심 개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위기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

경제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와 전개를 고려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예측 실패의 원인을 통찰하고 복잡한 미래 환경 속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4년 관광 산업 16조 달러 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 관광산업이 기후 위기, 지역사회와의 마찰, 글로벌 리스크 등에 직면해 있으나, 지속

가능성과 지역 포용 전략을 통해 2034년까지 세계 GDP에 16조 달러(약 2경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4. 자연 환경 및 기후(Nature & Cli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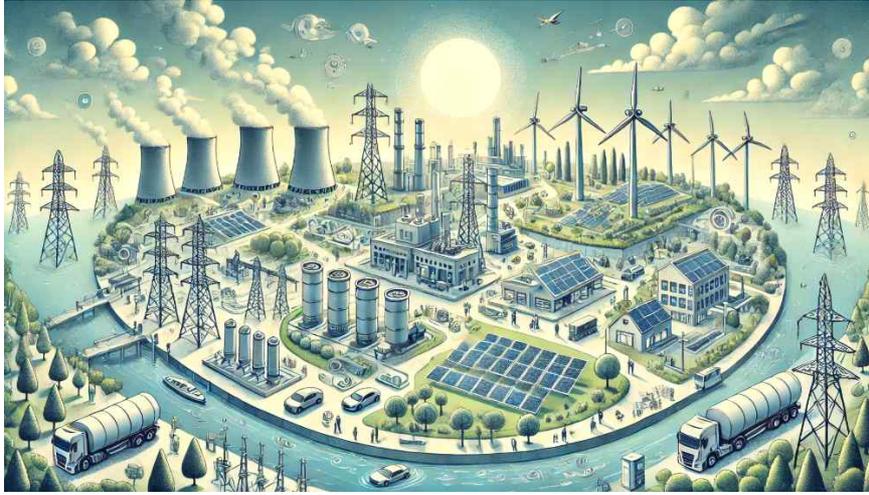
필수불가결한 회복력 : 기업들이 '1.5도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이유

기후 위기가 수익성, 공급망, 자산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2035년까지 연평균 최대 7%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위험 평가, 인프라 투자, 기술 활용, 가치사슬 전반의 협력 등 회복력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후 파트너십의 성공 원칙을 밝힌 혁신가들

효과적인 기후 협력은 명확한 거버넌스와 측정 체계 구축, 초기부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경제성과 신뢰, 포용성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5. 에너지(Energy)



에너지 전환,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

세계경제포럼의 '에너지 전환 지수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다시 탄력을 받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청정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4.8%에 그치며 국가별로 전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다차원적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아세안 에너지 전환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현안

아세안 에너지 전환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아세안 지역의 공동 리더십을 통해 기후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해 여러 에너지 전환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전기와 가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균형 잡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실질적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는 6가지 변화

LNG, SMR, 에너지효율, 저장기술, 청정에너지 투자, AI 등 6가지 구조적 변화가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공급 안정성,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만큼 정

책, 기술, 금융을 통합한 국가별 전략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 연료(SAF)의 비용 문제와 해결 가능성

SAF 확대가 항공산업 2050년 넷제로 달성의 주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높은 비용과 부족한 공급이 보급의 장애물로 지목됩니다. 정책 일관성과 장기 투자 유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6. 사회(Society)



포용적 도시가 경제적 회복력의 열쇠인 이유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포용적인 도시일수록 인적 자본, 창의성, 기업 생태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반면, 포용성이 부족한 도시는 인재 손실과 구조적 격차가 심화되어 도시 간 성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8,300만 국내 실향민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교훈

국내 피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초기 대응 단계부터 '해결 중심 접근'을 정책과 재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금융 기관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자원 마련은 피난민의 자립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UEFA 여자 유로 2025 : 스포츠 성평등 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다

여성 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구조적 변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 미디어 노출, 리더십 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여성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7. 건강과 식량(Health and Food)



글로벌 보건에서 민간 부문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글로벌 보건에서 민간 부문은 시스템 설계, 운영 통합, 인재 역량 강화,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명확한 역할 정립과 상호 책임 구조가 필요하며, 민간 부문 고유의 전문성을 보건 시스템 전반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입니다.

노년층에 치명적인 폭염... 주목할 보건 이슈들

폭염으로 노년층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정보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영유아용 말라리아 치료제 승인, 로봇의 무인 수술, 모더나 백신의 어린이 확대 승인, AI 기반 감염병 대응, 만성 스트레스와 치매 위험 증가,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자제 등이 있습니다.
